

#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또는 출장명: “국제농업개발협력 주요국별 중점추진 분야 선정 연구 - 아시아권 7개국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을 위한 필리핀·몽골 농업개발협력사업 현지 수요조사

## 1. 출장목적

- 몽골과 필리핀 협력 여건 파악, 국별 중점 추진분야 및 세부 사업수요 발굴
- 협력대상국의 ODA 제안 사업 내용 검토 및 자문

##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소속	출장지	출장기간
이대섭 연구위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필리핀(마닐라) 및 몽골(울란바토르)	2017. 7. 10. ~ 2017. 7. 15. (5박 6일, 여비 4박 5일 산정)
안규미 초청연구원			

## 3. 주요 내용

- 효율적인 ODA사업 발굴과 기획을 위하여 선정한 아시아 중점협력국 몽골과 필리핀의 국별 중점 추진분야 발굴
  - 필리핀 및 몽골의 농업 및 농촌 분야 현황, 개발협력사업 추진 실태 파악
  - 농업 및 농촌 개발협력사업 시행 여건 분석
  - 필리핀 및 몽골의 개발협력 필요 분야, 목표, 기간, 대상지역 등 조사
- 협력대상국의 ODA 제안 사업 내용 검토 및 향후 진행사항 협의
  - 세부사업 수요 파악을 위한 농업부 국제협력담당국 현지협의회 개최
  - ODA사업 수요 구체화 및 예비 사업제안서 내용 검토

#### 4. 회의 결과

##### 가. KOPIA 필리핀 사무소

□ 회의 일시: 2017년 7월 11일(화)

□ 참석자: 이정택, 박태호, 이대섭, 안규미

□ 주요 회의 내용

##### ○ 농업분야 연계 협력 사업

- 필리핀과의 농업협력은 쌀, 수확후관리, 기계화 사업 위주로 이루어져옴.
- 필리핀 정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협력 프로젝트 단계까지 고려된 사업 수요를 농경연에 전달하면 필리핀 정부에 사업 기획을 제안할 예정임.

##### ○ 수확후관리 사업

- RPC 구축뿐만 아니라 판매망 등 가치사슬 전 단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사업 형성이 불가함.
- 현재 대규모 RPC는 많이 건설되었으나 수송, 도정, 건조를 위한 기술역량이 부족함. 특히, 기상조건에 따라 건조방법이 달라져야 하며 우기 때 정부 수집이 필요함. 내년도 사업으로 수확후관리를 제안할 예정임.
- 농민의 고품질 쌀 생산 지원도 KOPIA의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음.
- 도정을 빠르게 하여 저장하고 건조 상태에서 도정하는 RPC의 기술적 파트를 보장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함. 한국 벼 품종과 필리핀 품종의 수확량, 수확기, 품질 차이가 상당함.

##### ○ 경지정리 사업

- 경지정리는 농업기계화의 필수조건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대형기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경지와 배수로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함.
- 농민 대다수가 1~3ha의 토지를 소유함. 일부 40ha 이상을 경작하는 농민도 있지만 대부분은 영세 소규모 농가에 해당함.
- 쌀을 포함하여 여러 농업 생산에서 물이 주요한 이슈인데, 적절한 저수시설이 필요하고 농업용수 확보가 잘 될 경우 기후를 고려하면 3~4모작도 가능할 것으로 봄. 물 문제가 비료보다 우선 해결과제라 판단됨.
- RPC 건설 등 생산성 자체를 높이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재배기술을 안정화하여 쌀을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시급함. 안정적 생산을 위하여 물과 비료 관리가 필수적임.

##### ○ 농업부문 기타 개발협력 수요

- 필리핀에서 최근 축산 축종개량 등 축산업발전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쌀 유통 등 상업화 가능한 분야는 ODA 사업 기획 후 KOPIA 협력연계 요청하여 진행할 예정임.
- KOICA도 우량종자 증식사업을 실시하여 효과가 좋았으며 이에 따라 신품종 개발을 위한 협력수요가 늘어남.
- 밥을 지었을 때 맛이 좋은 하이브리드 품종 선호도가 높으나 생산비용이 높고 구매가격이 높음. 품종 다양화 자체보다는 기존 품종의 재배법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나. 필리핀 농업부, NDA, NMIS, PhilRice

□ 회의 일시: 2017년 7월 12일(수)

□ 참석자: Elizabeth Padre, Cha Junio-Antinero, Rechel Macalalad, Susan de Guzman, Jane Bacayo(필리핀 농업부), Rene Martin de Guzman, Maria Teresa Rozul(NDA), Mau Capistrano, Elmer Bautista(Philrice). 이대섭, 안규미

□ 주요 회의 내용

##### ○ PPP 포럼 준비사항 점검

- 필리핀 농업부가 초청장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총 초청인원은 약 200명임.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 UNDP ADB, UNIDO 초청을 검토 중임.
- 코미코라는 합작투자 형태의 한국 농기계회사가 필리핀 원조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민관협력 사업사례로 고려할 수 있음.

##### ○ 농기계화 사업

- 경지정리 작업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임. 본격적인 경지정리 이전에 경지 클러스터링 작업을 하고 있음.
- 정부의 개입을 점차 줄이고 필리핀 국내외 민간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임.
- 해외농업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은 주로 대출과 융자 지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대출액 규모도 축소되는 추세임.

##### ○ 예비 PCP 검토 및 ODA 수요조사

- 국립낙농원(NDA)의 제안 사업은 공동연구, 단기연수, 낙농 현장 및 민간기관 견학, 정책개발 및 검토 워크숍 등으로 구성됨. 2019년 KAPEX 사업으로 고려될 수 있음. 이 제안사업은 필리핀개발계획(5년), 농업 정책과 연계성이 있음. 정부가 낙농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축산물 자급률 달성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음.
- 국가 정책 분석을 통하여 정책과 밀접하게 연관된 프로젝트를 제안하여야

함. 문제점 인식, 개선을 위한 제안,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메커니즘이 제안서에 명시될 필요가 있음.

-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하여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고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제안되어야 함.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연계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개발목표와 정책과의 연계성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립육류검역청(NMIS)의 제안사업은 축산폐수 질의 개선을 다루며 시범사업 형태로 실시한 사업을 다른 해안지역의 도축장에 확대 적용(scale-up)하려는 사업임.
- 바이오폐기물 처리에 관한 연구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필리핀 산업부 및 유관기관이 이 사업에 협력할 의지가 있음.
- 필리핀 환경자원부가 실시하는 인증제 달성계획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축산업 발전 계획 수립과 추진에 강한 정책 의지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필요한 설비, 장비, 시설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출물과 수혜자, 정책기여도를 구체화하여 제안서를 보강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이 명시되면 사업타당성이 더욱 높아짐.
- 필리핀에서 제안서를 보완하여 새로 한국에 송부하면 각국 정책 및 현장 수요 우선순위가 높은 세부분야를 선정하여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ODA 프로젝트 선정기준을 확정할 예정임.
- 7월 말일까지 금일 협의사항을 반영한 PCP를 새로 접수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1차 검토과정(스크리닝)에 들어감.

#### 다. 몽골 농업식품경공업부 국제협력국

회의 일시: 2017년 7월 14일(금)

참석자: Uyangaa Lawyer, 이대섭, 안규미

주요 회의 내용

##### ○ 농업분야 협력 수요

- 2018년 KAPEX 프로그램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사업진행여부에 관한 실시공문이나 별도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확인 요망함.
- 울란바토르 시내에 축산물 도매시장 구축은 농식품부가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업 중 하나임. 농경연에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관련 제안서가 준비되어 있음.
- 고비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도 중점제안 사업 중 하나로, 몽골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환경부와의 협력하여 추진 가능함.

##### ○ 할호골 지역 개황 및 개발 수요

- 할호골 지역의 주민은 약 3,300명이며 할호골 지역 중 국경지대는 중국과의

크고 작은 분쟁이 있음. 중앙정부에서도 할호골 지역 및 농업개발 부문의 중국과의 협력은 다소 기피함. 한국과의 농업협력은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함.

- 할호골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를 실현하려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가 높고 실제로도 각종 사업이 구상, 실시되고 있음.
- 본 지역에서 축산, 채소, 가축 유전자원 생산을 특화하고 생산된 농축산물의 수출 증진이 지역개발 계획의 주요 골자라 할 수 있음.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수출지대(export zone)를 형성함.
- 특히 몽골 서부, 북부는 구제역 축산질병 청정지역이며 이 점을 활용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나, 러시아는 현재 육류만 수입하고 채소는 자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중국으로는 채소 수출이 가능하지만 유기농산물 수출이 가능하고 검역조건이 까다로움. 몽골과 할호골 지역의 축산물과 채소 수출을 위한 시설 투자와 역량 강화가 시급함.
- 한국정부 또한 할호골 지역에서 협력 사업을 다수 실시하였음. 이전 농업부장관은 한국 할호골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투자만 승인하고 몽골 현지기업의 참여를 독려하지도 승인하지도 않았음. 해당 지역개발을 위한 한국정부의 별도 사후관리 지원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오이, 토마토, 딸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위스의 온실재배시설 구축 지원은 완료되었으나 온실재배지가 현재까지 운영이 지속되고 있음. KOICA도 온실재배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물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효과를 나타냄.

○ 향후 제안서 검토 계획

- 7월 말일까지 금일 협의결과를 반영한 제안서를 송부하면 1차 사업 검토과정에 들어감. 1차 검토 결과 2차 검토 대상이 된 사업에 한하여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임. 금년 11월에 한국에서 KAPEX·아시아 7개국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담당자가 토론에 참여하여 주기를 바람.

**라. KOPIA 몽골 사무소**

회의 일시: 2017년 7월 14일(금)

참석자: 이대섭, 안규미

주요 회의 내용

○ 농업 현황

- 농업분야 생산액 비중은 약 35~36%이며, 고용인구의 50% 이상이 농산업분야에 종사함.
- 기후변화로 인하여 사막화가 확대되고 방목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음. 산림

스텝지역에 방목하여 사육하는 가축의 체중증가량이 감소하였고 번식용 수컷이 부족하여 번식률이 저하됨.

- 최근 몽골 정부에서 가축을 등록하고 축산물 원산지과 위생 상태를 표기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소가 우선 등록대상이었음. 2013년 국내 젖소 원산지와 생산성을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 ○ 몽골 농업식품경공업부의 축산 관련 정책

- 방목형 축산업과 집약형 농업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형태를 육성하여 육류와 식육가공품 수출량을 연간 5만 톤으로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이 기본 정책목표임.
- 축산 부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외 축산 발전 경험을 연구하고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다수 실시하고 있음.
- 축산농가를 위하여 저금리 대출, 투자, 보험, 유연한 세금 정책을 실시함. 생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피해 등 축산농가가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축산업개발 특별기금을 확대 조성함. 농가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에 주력함.
- 전통적인 기존 축산방식을 유지하되 사육두수, 품종, 사육 가축집단의 구성비 등을 새로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안을 적용하여 집약형 농장개발과 접합하기 위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 가축등록, 축산물 생산판매 기준과 품질 개선, 원산지표시제 확립을 위한 각종 사업 실시, 목축업자 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 프로젝트도 시행됨.
- 가축 수를 늘리기보다 생산성과 판매유통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여야 하며 유전자원 보존, 번식육종 작업을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토대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신품종 개발과 첨단기술 도입뿐만 아니라 지역별 가축 번식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지원도 시급함.
- 가축 사료공장을 설립하면 정부가 대출 지원을 하고 사육사료 안전성을 검토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직접적으로 축산업을 다루지는 않지만 농촌인구 식수와 농업용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방목지에 우물, 저수조, 인공 연못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업도 정부가 중요도 높게 고려하고 있음.
- 축산업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제도화를 통하여 뒷받침함. 가축유전자원, 목초지 보호, 가축건강영양 등 세부 분야 정책과 규정을 제정함.

#### ○ 몽골 농업부문 협력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 사업 기획단계에서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을 유일한 협의 채널로 간주하기보다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정부부처(예를 들면 교육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몽골 농업 통계책자가 매년 발간되고 있음. 현황 파악과 사업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가 됨. 금년도 책자 발간 즉시 한국에 송부함.
- 기타 사업 결과, 기초 통계 등 공공기관이 작성한 자료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5. 일정표(방문기관 등) :

No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수행 업무
1	7.10(월)	인천 (20:05)		○ KE 623	○ 인천 출국, 현지 도착
			마닐라 (23:00)		
2	7.11(화)	체 재		○ KOPIA 필리핀 사무소	○ 농업농촌 현황 및 협력 사례 조사 ○ 개발협력사업 시행 여건 조사
3	7.12(수)			○ Philrice	○ 농업부 국제협력사업 담당자 면담 ○ 작성 진행사항 점검 및 내용 검토
				○ 필리핀농업부, 국립낙농원(NDA), 국립육류검역청(NMIS), 농어업기술국(BAFE)	○ 농업부 협력 요청 사업 추진여건 검토 협의 ○ 요청 사업 현장 방문 및 면담조사
4	7.13(목)	마닐라 (12:20)		○ KE622/KE867	○ 필리핀→몽골 이동
			인천 (17:15)		
		인천 (19:10)	울란바토르 (21:45)		
4	7.14(금)	체 재	(11:00)	○ KOPIA 몽골 사무소	○ 농업농촌 현황 및 협력 사례 조사 ○ 개발협력사업 시행 여건 조사
				○ 몽골 농식품부	○ 농식품부 국제협력사업 담당자 면담 ○ PCP 작성사항 점검 및 내용검토
		울란바토르 (23:15)		○ KE 868	○ 귀국
5	7.15(토)		인천 (03:25)		